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답안을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대표적 윤리 이론이다. 첫째,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행동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이다. 행동은 전적으로 결과에 의하여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 유일한 기준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산출할,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 이에 따르면 불행과 대비하여 행복의 양을 많이 산출할수록 선한 행동이 되며, 가장 선한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을 하기 전 발생할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개개인의 행복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을 비교할 때 오로지 그 둘에게 산출될 행복의 양만을 고려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전형적인 공평주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하여 반공리주의자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리주의가 때때로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세 요소들을 실천하는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집단 A와 집단 B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다고 가정하자. 민우는 집단 A의 한 사람이 집단 B의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민우가 만약 진실을 증언하면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 집단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확실성이 더 위험하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의 배제 상황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몇 가지 대응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하나는 공리주의 또한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먼저 가정하고 과연 어느 사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사회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행복을 더 많이 산출하는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공리주의자들을 규칙 공리주의자라고 한다.

[나]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능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다]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물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재화(財貨)가 없고, 진리(津吏) 노릇을 한다 하자니 중류(中流)에만 머무르고 왕래하지 않는다. 조각배 한 척을 변화할 헤아릴 수 없는 물에 띄워 만경(萬頃)의 가없는 곳을 헤매다가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물결이 놀란 듯이 밀려와 돛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지면, 정신과 넋이 날아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여 생명이 지척(咫尺) 사이에 있게 된다. 이는 지극히 험한 곳을 밟고 지극히 위태한 일을 무릅쓰는 일이로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도록 멀리 떠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주옹이 말하기를,

“아아, 손은 생각하지 못하였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고 놓아버림이 일정함이 없어서, 평탄한 육지를 밟으면 태연히 여겨 느슨하게 되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떨면서 두려워하게 된다. 떨면서 두려워하면 조심하여 굳게 지킬 수 있지만, 태연히 여겨 느슨하게 되면 반드시 방탕하여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내 차라리 험한 곳에 처하여 항상 조심할지언정, 안일한 데 살아 스스로 방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물며 내 배는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이라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혹시 한쪽으로 무거우면 그 형세가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임에랴.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내가 그 한가운데를 지켜 평형을 잡은 뒤에야 기울지 않아서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니, 아무리 풍량이 세차게 몰아친다고 한들 어찌 편안한 내 마음 상태를 어지럽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인간 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하나의 거대한 바람이다. 보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히 그 가운데 빠져 표류하는 것이 마치 조각배 한 척이 만 리나 되는 큰 물결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배에서 살면서 한 세상 사람들을 보니, 편한 것을 믿고서 그 환란을 생각하지 않으며, 욕심을 마음껏 부리면서 그 종말을 생각하지 않다가 함께 빠지고 엎어지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라] 누군가, 저렇게 무심한 표정, 에누리 한 푼 없는 완벽한 안일(安逸)의 자세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나이는? 자연 속에서 사람의 자세가 저토록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자못 경이롭기까지 하다. 강희안(姜希顔)의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에 우리도 잠시 마음을 기울여 보자. 그렇다. 잠깐의 여유, 바쁜 모든 일거리를 잠시 미루어 두고 느리게, 좀 더 느리게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림 속의 선비는 한없이 게으른 이임에 틀림없다. 젊은 날을 지새우게 만든 불같은 야심도, 가난한 마누라의 바가지도 이제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그 혼한 시동(侍童)도 한 명 없이 혼자 엎드려 있다. 저 우주의 복판에. 저 완전한 게으름, 저 완전한 정신의 자유. 시와 글씨와 그림 모두에 뛰어나서 삼절(三絶)로 불린 이 그림의 작가 강희안 또한 게으른 선비였다.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그를 평하기를, 성품이 나약하고 게을러서 조정에 다달이 내는 시문(詩文)도 종종 짓지 않았다고 하였다.

게으름은 나약과 통하는 법. 게으름은 악의 근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 왔다. 이솝의 <개미와 베짚이> 우화는 어린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울법을 새겨 놓았다. 게으름은 가난과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지만, 정녕 그런가?

지난 20세기의 위대한 지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러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뛰어난 에세이에서 그는 놀랍게도 행복에 이르는 길은 좀 더 게을러지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게으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다.

사실 “노동은 미덕이다.”라는 황금률은 끊임없이 노동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쉴 사이 없이 일하고, 숨 돌릴 틈 없이 달린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강희안은 달랐다. 그는 <양화소록(養花小錄)>이라는 글에서 “사람이 한세상 태어나 명예와 이득에 골몰하여 분주히 힘쓰다가 지쳐도 늙어 죽도록 그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진지하게 묻고 있다. 그 질문은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마] I grew up listening to my Chinese mother whose English is grammatically incorrect. Some people say they don't understand my mother's English and even describe it as “broken.” This makes it sound as if it needs to be fixed. I've also heard other terms used for her English, such as “limited” English. Actually, when I was young, my mother's “limited” English limited my view of her. There were times when I was ashamed of her English. Because she did not express her thoughts perfectly, I considered her thoughts imperfect. I had plenty of evidence to support that idea. People in stores did not give her good service, pretending not to understand her or even acting as if they did not hear her.

I have been thinking lately about my mother's English. Some of my friends tell me they understand 50 percent of what my mother says. Some say they understand 80 to 90 percent. Some say they understand none of it as if she were speaking Chinese. To me, however, my mother's English is perfectly clear and natural. It is my mother tongue. It is the language that helped shape the way I saw things, expressed things and made sense of the world as a writer. For example, people might come up with “nightfall” or “dusk” when they are asked to describe the word “sunset.” However, my imaginative mother tongue allowed me to see a burst of colors against a dark sky, the moon rising, and the lowering of a curtain of stars whenever I heard the word.

When I first started writing fiction, I used wittily crafted sentences that would finally prove I had mastery over the English language. However, I later started to consider who the readers of my stories would be. The reader I decided upon as a model was my mother. With her in mind, I began to write stories using all the “Englishes” I grew up with: the simple English I spoke to my mother, the “broken” English she used with me, and what I imagined would be her meaning if she could speak in perfect English. I wanted to reveal what language ability tests could never find out: her observations and insights. I knew I had succeeded when my mother finished reading my book and said, “So easy to read.”

[바] 그는 코허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차 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계급, 성분, 어디 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던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 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애,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식아, 별수 없다. 왜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아*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인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썸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낫세**로야 그걸 못 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구 별것이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두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좌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 노서아: ‘러시아’의 음역어(音譯語). ** 낫세: 그만한 나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사] 우리에게 집과 우리가 뛰놀던 들판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학교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녁의 토론회에서 교수와 학생이 장시간 주고받는 언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들판에서 쓰는 언어가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갔다. 식민주의자들이 세운 학교였다. 그리고 저 같은 언어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았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더 이상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언어가 아니었다.

1952년 케냐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뒤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는 모든 학교가 식민 정부에 의해 접수되었다. 영국인이 책임자인 교육부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제 영어가 내 학교 교육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케냐에서 영어는 언어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곧 말씀이었다. 나머지 다른 언어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만 했다.

그 당시 견디기 어려웠던 모욕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는 학교나 학교 언저리에서 기쿠유 말을 하다 걸리는 것이었다. 그 범죄자는 알공둥이에 3~5개 가량 회초리를 맞는 체벌을 받거나 ‘나는 바보다.’ 또는 ‘나는 당나귀다.’ 따위의 글이 새겨진 금속판을 목에 걸고 다녀야 했다. 때로 범죄자는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벌금으로 내야 했다.

영어는 정확히 그 반대 되는 대접을 받았다. 글을 짓거나 말을 할 때 영어를 쓰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상, 특권, 찬사 등 높은 보상이 따랐다. 영어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티켓이었다. 영어는 예술과 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습 영역에서 총명함과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영어는 정규 교육의 사다리를 오르는 데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되었다.

영어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으나 다른 과목의 점수는 시원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해, 식민지 케냐에서 아프리카 인을 위한 최고 엘리트 기관 중 하나인 얼라이언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마케레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 취득의 과정도 이와 비슷했다. 다른 모든 과목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고 해도 영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붉은색 학사 가운을 입기 위해 공부하는 대학 진학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모두가 가장 선망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뛰어난 영어 성적표를 가진 자들뿐이었다. 영어는 식민지 체제 속 엘리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문학 교육에서는 이런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지배 언어로 쓰인 것들만을 다루었다. 케냐 언어로 된 구술 문학의 교육은 중지되었다. 산토끼나 범이나 사자가 아니라 짐 호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톰 브라운 등이 내 상상 세계 속에서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스콧, 버나드 쇼가 리더 해거드, 존 부칸, 알란 페이튼 그리고 W. E. 존스와 겨루었다. 마케레레에서 나는 영어판으로 초서에서 엘리엇까지 읽었고, 그레이엄 그린도 살짝 맛보았다. 지배 언어와 지배 언어로 쓰인 외국 문학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타자에게로, 우리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점 점 멀리 데리고 갔다.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전통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비교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나]에 서술된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의 찬반 의견 각각에 대하여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0점]

2 제시문 [다]의 ‘위태함’에 대한 주옹의 인식과, 제시문 [라]의 ‘게으름’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에 나타난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30점]

3 제시문 [마]~[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마]에서 ‘어머니의 영어’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시각 변화를 요약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마]와 [사]에서 언어가 글쓴이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의 글쓴이가 러시아어를 대하는 태도와 제시문 [사]의 글쓴이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를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20점]